

# 추석을 잊은 사람들

광주비엔날레 자원봉사자

광주소방본부 종합상황실

## “미술잔치 힘 보태니 더 뜻깊은 명절”

“일 때문에 고향은 못 가지만 보람을 느끼죠.”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비엔날레 개최’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김복순(여·63·광주시 서구 금호동)·이옥례(여·63·북구 신안동)·임근숙(여·48·북구 운안동)·최진주(여·22·전남대 4년)·김주희(여·24·전남대 4년)씨. 관람객들에게 전시관 위치를 안내하고 외국어 통역 등을 담당한 자원봉사자들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모인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제7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들에게 올 추석은 여느 명절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추석연휴지만 광주비엔날레는 휴일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엔날레 전시관 출구에서 안내 및 홍보 팸플릿 배부 등을 맡고 있는 이옥례씨는 “이번 명절 편 서울에 사는 큰 아들 집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못 가게 돼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광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에 자긍심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일에 열중한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정문 안내데스크에서 영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희씨는 “완도가 고향인데, 이번 명절 때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께 인사할 못 드리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광주의 자랑인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탠다고 생각하면 아쉬

움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전시관 위치 안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 임근숙씨는 “음식 장만은 미리 해둔 상태에서 걱정하지 않는다.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뿐이냐”며 “남들이 쉬 때 일하는 것도 어찌 생각해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다”고 미소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고향 가고 싶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

“명절만 돌아오면 불효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11일 오전 광주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추석연휴 특별근무에 들어간 상황3팀 근무자 8명이 연신 울려대는 신고전화를 붙들고 긴급상황을 접수받고 있었다.

“저희는 추석을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원을 모두 고향에 다녀오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는 대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장남에 2대 독자 명절만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는 이철호 종합상황실장은 오히려 대원들을 걱정했다. 이 실장이 전한 ‘딱한 사정’은 바로 함께 근무하는 백우열 반장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올해 7년차 소방관인 백 반장은 고향이 경북 경산시인 탓에 그동안 설, 추



추석연휴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철야근무를 서고 있는 광주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상황 3팀 대원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석에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 특히 칠순이 넘는 아버지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의 마음이 더욱 더 무겁다.

상황실에서는 하루 1천~1천200여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온다. 이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0~20% 정도. 대부분 부주의와 인명에 관계없는 신고들이다. 추석이면 단

골로 걸려오는 신고전화도 있다. 명절 음식을 과하게 먹고 탈이 나거나, 귀성길에 오르면서 집에 가스불이나 가전제품을 켜 놓고 나온 경우다. 그러나 정작 대원들의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것은 명절에 찾는 사람들 하나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이다.

체덕현 상황부실장은 “귀성길에 오를 땐 집안에 가전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대비해 소화제 등 상비약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면서 “올해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전남 교통사고, 영암 삼호중 앞 최다

### 10대 다발지역 발표

전남도 소방본부는 11일 추석 귀성객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119구조·구급활동을 분석,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조활동이 가장 많았던 10대 사고 다발지역(발생건수 기준)을 뽑아 발표했다.

10대 사고 다발지역은 ▲영암군 삼호읍 LG저유소 앞~삼호중공업 도로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1차~대성동 사거리 ▲순천시 서면 학구삼거리 도로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내 대형중공업 앞 도로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백양사 IC부근 등이다.

또 ▲여주시 문덕동 라온유~11호광장 도로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 앞 도로 ▲순천시 해룡면 조례삼거리-울촌공단 사이 ▲여주시 문덕동 문수삼

거리~11호광장 도로 ▲순천시 주암면 점치재~공각리 신기 도로구간 등 10대 사고 다발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영암군 삼호읍 LG저유소 앞~삼호중공업 도로는 최근 3년간 108건의 교통사고로 1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10대 다발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로로 드러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한가위 보름달 볼 수 있다

### 광주·전남 내일은 비

추석 연휴 첫 날(13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올 것으로 보여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석 당일(14일)과 연휴 마지막날(15일)에는 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13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 나겠으며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며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

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14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이 29도에 달하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휴 마지막날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당일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북상 중인 태풍 ‘실라코(SINLAKU)’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날씨가 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서울대 수시2학기

### 경쟁률 6.94 대 1

서울대 수시2학기 전형 경쟁률이 평균 6.94대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38대1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 10일 마감한 서울대 수시2학기 원서 접수 결과, 전체 1천852명 모집에 1만2천844명이 지원했다. 775명을 모집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에는 2천698명이 지원, 3.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기자 전형에는 1천77명 모집에 1만146명이 지원해 경쟁률 9.42대1을 기록했다.

이밖에 10일 수시2학기 원서 접수를 마감한 포함공대는 6.08대1, 서울산업대는 7.03대1을 각각 기록했다.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조선대는 11일 오후 5시 현재 1천234명 모집에 2천643이 지원, 2.1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정성필기자 camus@

### 지리산 단풍

### 내달 21일 절정

올해 가을 단풍은 평년보다 2~3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도 단풍의 절경인 내장산 단풍은 10월 21일께 시작돼 11월 11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은 10월 12일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해 10월 21일 절정을 맞고, 무등산은 10월 24일 단풍이 들기 시작해 11월 5일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은 10월 17일, 설악산은 9월 29일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악산의 단풍은 10월 2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산 전체 면적의 20% 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으로, 단풍이 전체 면적의 80% 가량이 달할 때를 단풍 절정일로 판단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

### 젖은 고향길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 나겠으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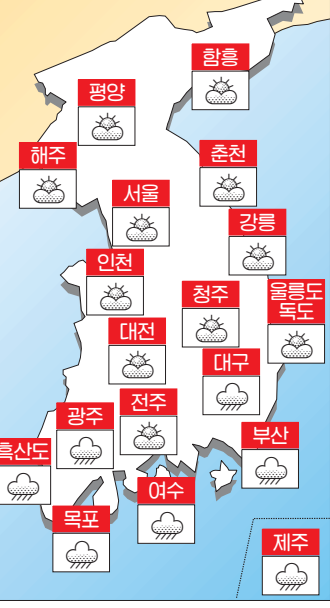
광주	오후 한때 비	22~29℃
목포	오후 한때 비	22~28℃
여수	오후 한때 비	22~26℃
완도	오후 한때 비	22~27℃
구례	오후 한때 비	22~30℃
해남	오후 한때 비	22~28℃
장흥	오후 한때 비	21~27℃
홍천	오후 한때 비	21~27℃
영광	오후 한때 비	20~29℃
진안	오후 한때 비	20~28℃
진천	구름 많음	21~29℃
남원	오후 한때 비	20~28℃
홍산도	오후 한때 비	21~25℃

서해남부 안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안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안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안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0:07 썰물 < 05:51  
11:59 썰물 < 17:39  
여수 밀물 < 07:06 썰물 < 13:06  
19:47

### 9월 12일

(음 8월 13일)

◇전국날씨



▲달출 16:59 ▲달짐 02:4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날씨						
최저/최고	22/29	21/29	21/29	21/28	20/29	21/29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전 세계 성형외과 개원(114) | 교·보·통 성형외과 #223-7000 | 의정부 성형외과 #263-0075

안동 성형외과 #365-0000 | 서울 성형외과 #582-1173 | 목포 성형외과 #352-5252

8대 동 성형외과 #275-4114 | 권대순 성형외과 #224-0080 | 바둑골 성형외과 #276-3300

조백현 성형외과 #226-6280 | 김병철 성형외과 #221-3777 | 김 성형외과 #274-7000

김호민 성형외과 #225-3719 | 김동식 성형외과 #294-7771 | 신치호 성형외과 #202-0222

최정원 성형외과 #225-4457 | 김환익 성형외과 #225-3777 | 목포 성형외과 #232-3000

최현철 성형외과 #224-7000 | 북문성 성형외과 #234-0009 | 새 원 성형외과 #202-0790